

'16일만에 1군 등판' 한화 엄상백, NC 상대로 5이닝 2실점

등록 2025.05.31 16:10:19



[서울=뉴스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한화 이글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한화 선발 엄상백이 역투하고 있다. 2025.05.09. jhope@newsis.com

[서울=뉴스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투수 엄상백이 1군 복귀전에서 이전과 달라진 투구 내용을 보였다.

엄상백은 31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8피안타 2사사구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까지 KT 위즈에서 뛰었던 엄상백은 2024시즌 종료 후 한화와 4년 최대 78억원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 8경기에서 1승 4패 평균자책점 6.68을 기록,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특히 5월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9.28로 극심한 난조를 보였고, 결국 지난 16일 1군에서 제외됐다.

이후 퓨처스(2군)리그 2경기에서 6%이닝(5실점)을 소화하며 점검을 마친 엄상백은 이날 16일 만에 1군 마운드에 올랐다.

엄상백은 1회말 한석현에게 안타, 박민우에게 몸에 맞는 공을 내줘 1사 1, 2루에 몰렸으나 맷 데이비슨과 박건우를 연거푸 뜬 공으로 봉쇄해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2회말에 실점을 남겼다. 엄상백은 선두 타자 오영수를 루킹 삼진으로 정리한 뒤 김휘집에게 3루타를 얻어맞은 데 이어

천재환에게 1타점 우건 적시타를 헌납했다. 이후 안중열과 한석현을 모두 땅볼로 막아내면서 추가점을 허용하진 않았다.

3회를 삼자범퇴로 끝낸 엄상백은 4회말 다시 한번 고비를 넘겼다. 아웃카운트 2개를 먼저 잡아낸 뒤 김휘집과 천재환에게 연속 안타, 안중열에게 몸에 맞는 공을 내줘 만루가 됐으나 한석현을 중견수 뜯공으로 처리했다.

5회말에는 주춤했다. 엄상백은 김주원과 박민우에게 연거푸 안타를 맞았고, 데이비슨에게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내줬다. 이후 견제사로 1루 주자 박민우를 지웠고, 오영수를 중견수 뜯공으로 유도해 이닝을 매듭지었다.

공 83개를 건진 엄상백은 5회를 끝으로 마운드를 내려갔다. 6회초 오른손 구원 투수 주현상이 투입됐다.

엄상백은 팀이 3-2로 앞선 상황에서 등판을 마무리하며 시즌 2승(4패) 요건을 충족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6.27로 낮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